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재검토 여론

환경연 "졸속 추진 중단하라" 성명 각종 특혜 의혹에 안전성 문제 제기 인접 무안지역 주민들도 반대 시 "문제점 충분한 검토 후 진행"

사업자 선정 등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뼈저렸던 목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 내 반발에 이어 인접한 무안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의 우려가 큰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

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당초 830억에서 1000억 여원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시민의 건강에 치명타를 줄 위험천만한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목포시가 환경부 등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지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방법과 공법 등을 목포시의 지역성에 맞게 고려해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협약서에 따라 보상 등의 귀책사유가 목포시에 발생했을 경우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민간사업자가 목포시에 인수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한 사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선7기에서 시작한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지

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기계 고장과 작동오류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다량 유출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검출량이 기준이 이하라 하지만 다이옥신의 누적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안전한 소각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진할 경우 제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979억원(국비 419, 민자 560)이 투입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용량 220t 규모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한국철도공사와 관광 발전 협약

홍보·관광 마케팅 등 공동 추진

진도군이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최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관광 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철도여행과 진도지역 관광 활성화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민철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관광 홍보 활성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경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박-철도 연계 관광상품 기획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KTX는 연간 9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며 "진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등 양 기관이 협력할 경우 전국의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창립 61주년 무안농협 농협 '총화상' 수상 영예

창립 61주년을 맞은 무안농협이 최근 기념식을 갖고 '총화상' 수상을 자축했다. 농협 총화상은 전국 농축협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상호간 인화단결과 복무기강으로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해 모범이 되는 사무소에 수여하는 농협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 총화상 수상 사무소는 중앙회 등 10개소와 지역 농축협 등 16개소 등이다. 무안농협은 본지점 장구환경개선공사와 영농자재판매장 진열현대화를 통한 조합원 편의증대, 양파 등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한 농정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농업 등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대출 등 신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출금 2000억원을 달



무안농협 임직원들이 11일 창립 61주년과 '총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하고 예수금 3000억을 돌파했으며 조합원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총화상에 선정됐다.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농협 참여와 함께 전 임직원의 단합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 조합원 실익지원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면서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무안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양 만점 국민 간식' 해남 고구마 본격 수확

500여 농가 2200여ha 재배 종류별 11월까지 순차 수확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 해남은 연간 3만 4000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서, 올해 500여 농가에서 2200여ha를 재배하고 있다.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한 햇고구마는 조기재배용 밤고구마인 진솔미 품종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한달가량 일찍 선보이고 있다. 진솔미는 2016년 국내 육종된 밤고구마 품종으로 기존 밤고구마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해남고구마는 풀고구마와 호박고구마 등 시기별로 11월까지 수확된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아 대표적인 국민 영양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코로나 이후 소비량이 대폭 늘고 있는 농산물로 꼽히고 있다. 해남고구마는 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hnmiso.com)와 농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미소에서는 햇 고구마 외에도 고구마 말랭이, 아이스크림고구마 등 고구마 가공식품도 상시 판매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휴가철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38만여명 이용

거리두기 완화...24% 증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전남 서남해 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38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차량은 11만 3000대가 이용해 전년 대비 9% 늘어났다. 이는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과 해상 농무로 인한 부분 통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진도-제주 항로 신설에 따른 여객선 취항 등으로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목포권은 24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

가했다. 주요 항로별 실적은 목포-제주 항로가 7만 2000명(41% ↑), 목포-홍도 3만 6000명(42% ↑), 목포-남강-가산 3만 1000명(16% ↑), 목포-하의-신의가 2만 4000명(5% ↑)이다. 완도권은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가 늘어났다. 항로별로는 화흥포-소안 3만 4000명(37% ↑), 완도-청산 2만 3000명(4% ↑), 당목-일정 1만 1000명(35% ↑), 땅끝-산양 항로는 3만 8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아무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수송이 이뤄졌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여객선 및 터미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1004섬 신안 시티투어버스' 운행 시작

그 동안 신안군의 '가고 싶은 섬'들을 쉽게 찾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관광객들을 위한 길이 열렸다. 한국관광공사와 신안군관광협회는 2022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송정-목포역과 퍼플섬 등 교통연계망 구축을 위한 '1004섬 신안 시티투어버스' (이하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버스 이용시 UN WTO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속의 섬 '기정-소악도',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거장 김환기고택, 세계화석광물박물관 등 자연

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해양의 수려한 풍광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시티투어버스에는 신안을 여행하는데 도움을 줄 문화관광해설사도 함께 동승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알차게 소개한다. 시티투어버스는 광주송정역과 목포역에서 매주 토요일·일요일 주 2일, 오전 9시에 출발해 9시간 여정으로 하루 1회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기준 송정역 출발시 2만원, 목포역 출발시 1만5000원이며 장애인·경로·청소년은 50%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입장료와 식비는 별도 개인부담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